

외 부 원 고

KC네트워크 대표이사 / 김 정 희

봄날은 오는가



이른 아침부터 언니의 손을 잡고 할
머니집에 쳐들어온 조카 왈,

“이모, 나 정말 신데렐라 같지? 나
도 이제 유치원 간다아~.”

헤어핀부터 구두까지 온통 분홍색으
로 치장한 조카의 수다가 집안 곳곳
에 개나리꽃을 피워놓는다. 여섯 살
코흘리개의 치마에도 기어이 봄은
오고야 말았으니, 하늘거리는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봄은 여성들의 가벼워진 옷차림에
먼저 온다 하였던가. 그러나 멋스러
움에 둔감한 나로서는 해마다 이맘
때쯤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봄꽃
사진’에서 비로소 봄을 느낀다. 오늘
은 마침 봄이 오신 날이다. 활짝 핀
진달래꽃 뒤로 예외없이 어린아이의
함박웃음과 사춘기 소녀의 수줍은

미소가 자리잡고 있다. 반가운 봄꽃
과 함께라면 아주머니의 너살 좋은
웃음인들 어떡하랴.

팬시리 들뜬 마음에 한결 가벼워진
옷차림을 하고 장바구니를 들었다.
겨우내 추위에 시달렸던 몸에 선물
을 할 요량이다. 달래며 냉이, 썩, 씹
바귀 같은 봄나물들을 한 아름 사다
가 무쳐 먹고 지져 먹고 또 비벼 먹
고... 김이 폴폴 올라오는 뜨거운 밥
에 달래장을 얹고 참기름 듬뿍 둘러
먹을 생각을 하니 입안 가득 군침이
돈다. 거기에 콩나물 몇 대가리 삶아
없거나 달걀 후라이 하나 떨어뜨리
면 임금님 수랏상이 부럽지 않을 게
다.

요즘 대형 할인마트다 뭐다 해서
재래시장이 설 곳을 잃어간다. 하지

만, 뛰니뛰니해도 재래시장의 떠들썩한 소박함에 비할 바가 아니다. 시장 어귀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하는 예의 그 낮은 ‘소리’들. 목청껏 외치는 장사치들의 호객 소리, 한 푼이라도 더 깎아보려는 아줌마의 너스레, 딸그락거리고 딸랑거리고 덜커덩거리는 소리들이 리얼 다큐멘터리의 정겨운 소품마냥 친근하다. 사람 사는 세상에 들어서고 있음을 느낀다.

그 시장골목 모퉁이 하나를 늘상 지키고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계신다. 그렇다고 다른 장사치들처럼 매갈 좋은 사과나 야채, 생선 등을 파는 것도 아니다. 신문지 한 장 깔아놓은 위에 노랗고 까만 고무줄 꾸러미가 듬성듬성 놓여져 있을 뿐이다. 어린애 기저귀 채우던 노란 고무줄이 요즘처럼 일회용 기저귀가 넘치는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다고….

작정하고 먼 발치에서 차근차근 할머니 얼굴을 훑쳐보노라니, 희수에 돌아가신 외할머니만한 세월의 흔적을 얼굴에 담고 계신다. 남루한 옷차림에, 아마 끈적한 피마자 기름으로 빗어넘겼을 듯없는 흰 머리는 몇 십년은 되었음직한 오래된 은비너로

단정히 쪽을 지으셨다. 굵은 손으로 무얼 그리 열심히 만드시나 싶어 가만히 곁에 앉았다.

“할머니, 뭘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계세요? 어머, 이거 골무 아녜요?”

“그랴, 골무여. 다 내가 맹글었제. 고무줄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어. 댁도 하나 사려우? 500원만 줘.”

세상에, 올해 환갑인 올 엄마가 시집을 때 해오셨다는 그 한복 천과 비스무레한 천으로 이처럼 빨강고 파랑고 노오란 앙증맞은 골무가 만들어질 수 있다니. 눈도 침침하실 할머니께서 어찌 이리도 정교한 바느질을 다 하실까 신기하기도 했지만 가슴 한 칸이 싸아하니 아파왔다. 젊은 사람도 피곤할 골무 만드는 일을 이런 한 데서 하게 만드는 할머니의 자식분들에 대한 원망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괜한 오기가 생겨 아예 할머니 옆에 자리잡고 앉아, 사시는 곳이며 가족관계 등을 여쭙러니 할머니 얼굴이 금새 그늘지고 말았다. 같이 사는 사십줄의 막내아들이 백혈병으로 투병중인지 벌써 십 수년째인데 약 한 번 번번이 써보지 못하고 요즘 부쩍 각혈이 심하다는 것이었다. 없는 형편에 누가 골수를 기증해 줘도 수술



비를 감당할 수 없어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린다니, 세상은 어찌도 이리 불공평한 것일까.

우리나라처럼 기부실적이 저조한 곳에서 할머니 아들의 골수며 수술비를 대신해줄 사람을 만나기가 어디 그리 쉽겠는가? 갑자기 암담하고 가슴이 답답해져 땀지돈을 털어 할머니 반찬값으로 보태주고 돌아서고 말았다.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는 할머니를 뒤로 한 채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는 길은 빈 장바구니만 큼이나 허전했다.

이럴 때면 괜시리 비평가의 시각에서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에 꼬투리를 잡게 된다. 요즘 월드컵이다 각종 선거다 해서 사회가 복잡한테 이럴

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갈 몫이 혹 줄어들지나 않을까 걱정인 것이다. 여러 모로 사람들의 조그만 마음 씀씀이가 아쉬워진다.

귀여운 조카의 얼굴에도, 늘 가던 동네 시장에도 분명 봄은 왔건만, 고무줄 파는 할머니의 봄은 영영 오지 않을 것인가...

